


2013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23.(수)~	담당자	이영일 비서
------	-------------------	-----	--------

▶ 한국투자공사,대한민국 경제규모와 발맞출 때!

– 운용규모확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주요국부펀드와 어깨 나란히 해야

- ☞ 국부펀드연구소(SWFIstitute) 발표, 자산규모 19위에 만족할 것인가!
- ☞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
- ☞ 현행 투자방식으로는 역부족! 부동산, 원자재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 투자공사는 투자전문가의 징검다리? 전문가 유출 막아야!

- 최근 5년간 24명의 전문인력 퇴직, 그중 16명(67%)이 투자 관련 직종으로 재취업?!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 경제규모와 발맞출 때!

–운용규모 확대,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어깨 나란히 해야–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한국투자공사는 '13년 9월 현재 순자산 645억불, 투자성과 95억불, 최초 투자이후 총자산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3.61%로 성과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하여 외환보유고 대비 적은 운용자금, 국내 연기금과의 공조 미흡, 전문인력, 현행 제도에 따른 투자방식의 한계와 지조한 집행률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위탁 자산과 투자성과 등) 위탁자산은 '13년 9월 현재 총 550억불(재정부: 350억불 한은: 200억불)로서 자산별로는 전통자산 481억불, 대체자산 49억불, 전략적투자 20억불임. 또한 장기분산투자 원칙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결과 투자개시 이후 총 투자 수익 95억불(BoA 지분 평가손실 포함)을 달성

〈 최초 투자이후 투자성과 요약 〉

(단위 : 억불, '13년 9월말)

구 분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누적투자손익
전통자산	주 식	262	313	51
	채 권	172	218	46
	기 타*	47	50	3
	소계	481	581	100
대체자산	헤지펀드	14	16	2
	사모주식	23	25	2
	부동산	10	11	1
	현금등가	2	2	0
	소계	49	54	5
전통+대체자산 소계		530	635	105
전략적 투자(BoA)		20	10	-10
합계		550	645	95

* 기타는 물가채권, 상품, 현금, 혼합형 등으로 구성

** 전략적 투자는 Bank of America 투자 (원금기준 20억불)

○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총자산 수익률은 '13년 9월 기준 3.61%(연환산기준)이며 동기의 전통자산은 4.81%로 운용기준 대비 0.48%p 초과수익을 달성함.

- 12년 수익률은 11.83%로 운용기준 대비 0.66%p 초과수익 달성

< 전통자산 수익률 요약 >

(단위 : %, %p)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08~’12)	'13.9월	최초 투자이후 연환산 수익률
전체	투자수익률(A)	-13.71	18.67	8.46	-3.32	11.83	3.72	4.81	4.55
	운 용 기 준 (B)	-13.05	17.24	8.41	-2.43	11.17	3.69	4.34	4.54
	초과수익률(A-B)	-0.66	1.42	0.05	-0.90	0.66	0.03	0.48	0.01
주식	투자수익률(A)	-41.43	31.96	11.71	-10.26	16.20	-2.08	11.34	0.82
	운 용 기 준 (B)	-41.32	32.20	12.39	-9.27	16.19	-1.67	10.69	1.22
	초과수익률(A-B)	-0.11	-0.23	-0.68	-0.99	0.01	-0.41	0.66	-0.40
채권	투자수익률(A)	3.81	8.52	5.60	3.94	7.76	5.90	-1.94	5.47
	운 용 기 준 (B)	5.16	6.81	5.25	4.64	6.52	5.67	-1.78	5.36
	초과수익률(A-B)	-1.36	1.71	0.35	-0.71	1.24	0.23	-0.16	0.11

* 최근 5년간 ('08년~'12년) 연환산 수익률은 3.72%, 운용 기준 대비 0.03%p 초과수익 달성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와 운용자금) 국부펀드연구소(SWF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 70개국 중 한국투자공사는 자산규모 기준 19위(운용자 기준 21위)를 기록하고 있음. 운용자금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외환보유현황 (USD bn)>

국 가	Korea	China	Norway	USA	New Zealand
운 용 기 관	KIC	CIC	NBIM	Alaska Permanent Fund	NZ Superannuation Fund
총자산 (‘13년 3월 기준)	57.7(18%)	480.2	715.9	45.0	16.6
외환보유고 (‘13년 3월 기준)	328.8	3442.7	53.6	147.3	19.1
외환보유고 (‘07년 3월~’13년 3월 5년 평균)	299.7	1556.4	48.1	113.8	15.7

* 국제금융센터 외환보유액 금융지표(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참고작성('13.10)

○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경쟁과 운용자금 규모 확대) 최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들은 전략적 국부증진,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 육성 중임. 이러한 국부펀드 간 직접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금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임.

- 인도, 태국 등 후발주자들도 국부펀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8년 만에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 설립되었고 향후 인도, 태국, 일본 등 10개국 이상이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

<2006년 - 2013년 1월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분석>

국부펀드 대형화 관련 comments

“급증한 외환보유와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운용자금을 계속 늘려나갈 것”

-전리현 CIC 감사장, 2011년 5월

“호의적 외부 환경과 더불어 후세대를 위한
부의 증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증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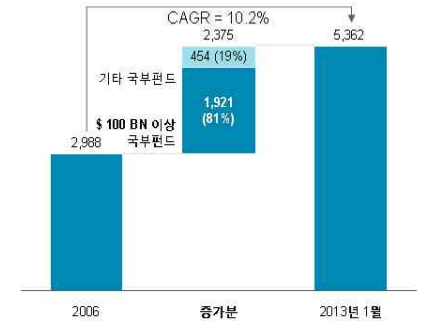
-10위권 중동 국부펀드

“AuM 1,000 억불을 넘는 국부펀드들의
규모의 이익이 명확...선도 국부펀드들은
지속적으로 자금 증가를 추진할 것”

-국부펀드 전문가 패널

Source: SWF Institute, Press search, Oliver Wyman analysis

국부펀드 순위별 평균 AuM
변화
USD BN, 2006 - 2013.01



- 2006년 이후 국부펀드는 연평균 10%의 높은 AuM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 ...국부펀드 성장의 약 80%는 AuM 1조원 이상의 대형 국부펀드로부터 발생

출처: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글로벌 금융컨설팅 회사

○ (투자방식의 한계) 한국투자공사는 전통자산 90%, 대체투자 10%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 인력 부족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를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부동산 및 사모주식 투자(원자재 관련 포함)는 투자 수행과정에 있어 상당량의 업무와 시간이 소요됨
- 양질의 투자기회 발굴, 수익성과 리스크 검토, 타기관 협상, 자산관리, 매각 등 단계적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전제 되어야 함
- CIC(중국)의 경우, 원자재 영역 직접투자 비중이 80%에 달함

〈CIC(중국)의 부동산, 원자재 관련 투자현황〉

산업	투자대상	시점	국적	지분율
Metal&Steel	Noble Group (금속 운송)	2009	홍콩	15%
Mining	Teck Resources (자원 채굴)	2009	캐나다	17.2%
	Polyus Gold International Ltd (금채굴)	2012	러시아	5%
Oil & Gas	Noble Oil Group (유전개발)	2009	러시아	45%
	Penn West Energy Trust (자원개발지주)	2010	캐나다	47.3%
Utility& Energy	GDF Suez SA (유전개발)	2011	프랑스	30%
	AES Corp (발전소 운용)	2010	미국	15.8%

자료: 올리버 와이먼 보고자료

○ (저조한 집행률에 따른 문제) '12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는 외화자산 규모는 당초 계획액이 100억불이었으나 이 중 85.2억불만 실제 위탁되었다는 지적과 지난 '11년에도 실 집행액은 계획액의 50억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투자공사가 대체자산에 투자할 때는 투자 결정에 시간의 소요가 상당하여 위탁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이 자금은 이월이 되지 않음.

〈집행률 문제와 관련한 자금집행 프로세스 개선내용〉

KIC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기획재정부 위탁계획 예산 100억불 중 약 15억불의 대체자산 미집행금액은 하반기 50억불 추가 위탁이 11월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 결정됨에 따라 연내 자금집행이 어려웠음 - 대체자산의 특성상 적절한 투자처의 발굴, 신중한 내부검토, 투자조건 협상의 지연, 다년간에 걸친 자금집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문제발생 전 프로세스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펀드매니저(General Partner)로부터 자금집행 요청(Capital Call)이 발생할 때마다 위탁자(기획재정부)에게 자금이체를 요청하여 집행 - 기획재정부의 위탁자산은 국가예산(외평기금)의 집행으로서 매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예산으로 재배정 받지 않으면 정부회계처리 상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됨. - 대체자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Commitment) 이후 자금집행이 3 ~ 5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집행기간의 불일치로 기금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
개선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위탁이 결정되면 이를 모두 전통자산(채권 및 주식)으로 운용하고, 위탁 자산 중 대체자산에 배분된 금액은 자금소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통자산에서 인출하여 대체자산 투자에 집행. 따라서 기금예산의 불용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정책제언

○ (자산규모 19위? 대한민국 경제규모 고려해야) 한국투자공사는 설립이후 일부 투자(BoA 메릴린치)에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음. 향후 주요국의 국부펀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운용자금 확대, 전문인력 확보, 대체투자 확대 등의 다각도의 투자방식 도입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주요국과의 경쟁과 신흥국의 발전) 최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들은 국부증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8년 동안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로 설립됐고 또한 인도, 태국, 일본 등도 국부펀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 설립이후 8년 동안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로 설립되었고 이 중 8개 국부펀드는 국부펀드연구소가 발표한 자산 규모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일본, 인도, 태국 등이 국부펀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 필요

- 결국 운용자산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의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함

○ (투자방식의 한계) KIC는 안정성을 중시(전통자산 90%, 대체투자 10%) 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한국투자공사 역시 부동산 및 사모주식 등(원자재 포함)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인데, 투자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량의 업무와 시간의 소요가 있음. 이와 같은 투자의 경우 양질의 투자기회를 발굴, 수익성과 리스크 검토, 자산관리 및 매각 등 단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개선 필요.

○ (저조한 집행률에 따른 문제) '12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외화자산 규모는 당초 100억불로 계획되었으나 이 중 85.2억불만 실제 위탁. 지난 '11년 역시 실집행액은 계획액의 50%인 50억불에 그침.

전문인력 확충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전문인력, 최근 5년간 24명 퇴직! 이중 67%가 유사직종으로 전직-

□ 현황과 문제점

○ (전문인력 확보? 유출부터 막아야) 최근 5년간('08~'12)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퇴직인원 24명 중 건강상,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8명을 제외한 16명(전체 퇴직 인원의 67%)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

〈연도별 퇴직직원 현황 및 재취업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직무	퇴사일자	퇴직사유	전직회사	
						재취업기관	직위
OOO	리스크관리팀	부장	리스크관리	08-02-29	전직	A증권	전무
OOO	정보시스템팀	과장	IT	08-07-04	전직	B 금융지주	차장
OOO	투자전략팀	과장	리서치	08-09-26	전직	C자산운용	차장
OOO	간접운용팀	차장	EFM	08-10-01	개인사유	D연금	실장
O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_Trading	09-08-07	전직	E	상무
OOO	주식운용팀	전임	주식운용	09-09-10	전직	F증권	과장
OOO	대체운용실	선임	헤지펀드	10-04-01	전직	-	-
OOO	기획관리실	부장	대외협력	10-05-12	전직	G	본부장
OOO	증권운용실	선임	Quant	11-04-19	전직	H자산운용	팀장
OOO	기획관리실	대리	총무_비서	11-08-02	전직	I공사	대리
OOO	증권운용실	전임	채권운용	11-08-16	전직	J증권	Junior
OOO	대체운용실	선임	법무	11-10-21	전직	K	Legal Counsel
O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운용	12-02-03	전직	L증권	부장
OOO	투자전략실	선임	간접운용	12-06-09	전직	M	이사
OOO	투자전략실	선임	TAA	12-09-28	전직	N	Investment Associate
OOO	부동산인프라팀	선임	부동산인프라	12-10-31	전직	O증권	-

자료: 한국투자공사

○ (전문인력 채용 관련) 신규인원확충('12년 40명/ '13년 19명)으로 '13년 7월 현재 1인당 자금운용 규모는 4.5억불로서 지난해 4.7억불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했지만 해외 주요 국부펀드(Khazanah Nasional 1.23억불/ GIC 2.48억불/ QIC 1.2억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투자유관 부서와 일반관리부서(19%) 비율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일반관리부서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금을 운용하는 인원에 대한 1인당 자금 운용 규모는 더욱 높아질 것임.

〈정원 및 1인당 운용규모〉

구분	2010	2011	2012	2013
운용금액	369	429	566	633
정원(명)	75	91	120	141
1인당 운용규모	4.9	4.7	4.7	4.5

자료: 한국투자공사

○ (전문인력 확충, 제도 개선부터) 한국투자공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선진 자산운용사와의 경쟁이 불가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투자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가장 필요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관리 및 조직관리, 급여의 제약 등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경우 IB 등의 타 투자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부펀드와의 1인당 운용규모 비교 오류) KIC 인력구조는 투자업무의 관련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Front, Middle/back, 경영관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투자업무와 가장 밀접한 'Front' 72명, 리스크 관리와 운용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Middle/back' 36명, 기획과 인사 대외홍보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27명으로 정직원은 139명임.

〈KIC 인력현황〉

부 문		인원	세부업무별 인원
임원		4	CEO, CIO, COO, CRO
투자	Front	72	투자전략/리서치/SAA/TAA/헤지펀드 등 13, 주식운용 18, 채권운용 16, 사모주식 13, 부동산-인프라 9, 헤지펀드 3
	Middle/ back	36	리스크관리 11, 운용지원 8, 준법감시 5, 정보시스템 8, 해외사무소 4(소장, 오피스매니저)
경영관리		27	기획 6, 인사 5, 대외홍보협력 7, 경영지원 6, 감사실 3
기타		30	해외사무소9, 기타30
계		169	

-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할 때 139명(현원), 141명(정원), 169명(전체인원)을 혼용해서 제출하거나 발표함. '13년 10월 기준 전체인원 169명 중 자산의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등의 인원도 포함한 전체인원(169명)으로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임

〈본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국부펀드의 1인당 운용규모〉

구분	KIC	싱가포르 GIC	싱가포르 테마섹	뉴질랜드 Super annuation
운용금액	645억불	2,475억불	1,980억불	178억불
전체인원	169명*	1,000명	380명	76명
1인당 운용규모	3.8억불	2.5억불	5.2억불	2.3억불

자료: 한국투자공사

- 또한 경우에 따라서 1인당 운용규모를 달리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비교에서 비교대상도 마찬가지로 정원/현원/전체인원을 동일하게 비교해야 할 것인데 GIC(1000명), Temasek(380명)은 전체인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수만 비교

□ 정책제언

○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퇴직인원 24명 중 건강상,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8명을 제외한 16명(전체 퇴직 인원의 67%)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

- 한국투자공사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등을 통해서도 공론화 되고 있는 전문 인력 확보문제는 국부펀드 운용사로서는 운용자금의 확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 간 퇴직한 전문인력 중에는 건강,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인원도 8명이 있으나, 16명의 전문 인력(67%)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실제로 동종 업계로 자리를 옮겼음. 이는 한명의 전문 인력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투자공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관리 및 조직관리, 급여의 제약 등 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의 법 적용은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투자공사로서는 장애요인이 될 것임.

○ (1인당 운용규모 비교의 오류 개선필요)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할 때 139명(현원), 141명(정원), 169명(전체인원)을 분모로 하는 1인당 운용규모를 각각 혼용해서 제출하거나 발표함. 전체인원 169명('13.10 기준) 중 자산의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도 포함한 전체인원(169명)을 분모로 하는 것은 '1인당 운용자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

- 본 의원실에서는 1인당 운용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한국투자공사에 두 차례 요구한 결과, 전체인원 169명에 대한 3.8억불, 정원 141명에 대한 4.5억불이라는 자료를 각각 제출했음. 따라서 혼용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해 재차 확인결과 한국투자공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139명(Front, Middle/back+경영관리)과, 141명(정직원의 정원), 그리고 169명(Front, Middle/back+경영관리+기타인원)의 인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하고 발표하는 것은 투자전문 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음
- 한국투자공사의 인력부족 문제는 공론화 되고 있고 일부 공감하고 있는 면이 있으나, 주요국의 국부 펀드와 1인당 운용자금 등 객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국의 국부펀드에 인력구조는 기밀사항이라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해옴. 지금까지 제출되거나 연구 자료를 통해 발표된 주요 국부펀드와 한국투자공사의 비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